

# 약소국의 외교정책분석이론에 대한 연구

김진호\*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권력정치(Power Politics) 시각
- III. 세계체제분석(World System Analysis)
- IV.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 V. 종속접근법(Dependence Approach)
- VI. 요약 및 결론

## I. 문제의 제기

국제관계에서 약소국(small states)에 관한 연구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sup>1)</sup> 약소국의 연구에는 4가지 뚜렷한 연구가 돋보인다. 즉, 권력정치적 시각(Power Politics Analysis),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세계체제론(World System Analysis), 종속학과(Dependency School)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약소국의 행위와 국제적 지위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로서 경제·개술적인 요인과 정치·군사적인 것을 다양화 하는데 있다. 권력정치학파는 국가간의 경쟁을 조정하는 확실하고 일상적인 국제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주권국가들간의 정치·군사력을 위한 투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세계체제분석은 근본적으로 전국제체제의 경제적인 역동성에 관심을 갖는다. 성장과 침체의 주기는 국제관계의 본질과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향상, 하락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1) Wilhelm Christmas-Moller, "Some Thoughts on the Scientific Applicability of the Small State concept : A Research History and a Discussion", Otmar Holl, (ed.), *Small States in Europe and Dependence*(Boulder, Colo : Westview press, 1983), pp. 36~50.

정의한다. 구조적인 접근에서 국제체제는 국가들이 경험적으로 놓여 있는 일련의 능력차원 (Capacity Dimension) 으로 간주한다. 국제체제의 특징은 체제구성국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계층구조에 의해 규정지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로 종속 학파는 주도국 (dominated states) 을 구분하는데, 주도국은 초국가적인 경제력을 소국, 또는 약소국 (weak states) 의 약소국의 정치·경제에 침투시킨다는 것이다.<sup>2)</sup> 이리하여 저발전과 구조적인 왜곡이 국내경제에 창출되고 침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국가로 불리우는 지정학적인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정치권력과 군사력을 위한 투쟁은 영토의 상실과 획득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모든 접근법들은 불평등한 능력을 가진 국가간에 종속, 지배,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영토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것을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기능적이다. 이것은 체제 역동성 (system dynamic) 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끌어 간다. Johan Galtung의 말을 빌리면, 기본적으로 권력장치에 분석된 영토체제의 역동성은 통합 (fusion) 과 분열 (fission)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기능적 (비영토적인 체제) 인 역동성은 체제의 성장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려 질수 있다.<sup>3)</sup>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체제에서도 불평등한 성장은 있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소국역할에 대한 변천을 살펴볼 때에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토적인 과정과 기능적, 경제·기술체제의 성장이 중요시 되어왔다.

국민국가와 세계체제간의 구별은 모든 접근법에 취급이 되지만 다른 맥락에서 행해진다. 권력정치의 전통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국가는 자신의 이익과 동기에 따른다는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무질서한 경쟁의 세계에서 추구되어야만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명이다.

Georg Schwarzenberger에 의하면 :<sup>4)</sup>

\* 국가는 제도적인 틀을 구성하고 국가안전의 수호자이다. 이룩하지 못한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한 임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가는 민족주의가 부르짖는 배타적인 동정심과 감성에 물들게 된다. 이것이 국가의지의 표현이고 상징

- 
- 2) 본 논문에서는 소국 (small states) 과 약소국 (weak states) 의 개념을 구별없이 사용하였다.
  - 3) Raimo Vayrymen, "Small States in Different Theoretical Tradi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tmar Holl, (ed.), *small states in Europe and Dependence*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1983), p. 84에서 재인용.
  - 4) Georg Schwarzenberger, *Power Politics : A Study of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1951, p. 63.

이다.”

세계체제접근법에서 국민국가는 사회계급, 민족그룹과 같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이것들간에는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에 의해서 정의되고, 댓가로 국가를 창출·구성·변용시키는 상호작용의 유형이 있다. 권력정치에서 국민국가는 국민적인 목표와 목적에 의해 형성된 집착적인 집합체 (Coherent Collectivity) 라는 반면에 세계체제시각에서 국민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세계시장의 맥락에서 그를 자신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한 기구 (instrument) 이 상이다.<sup>5)</sup>

“어떤 국가영토의 안·밖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은 부단히 국가권력을 퇴보·중진·유지시키려 한다. … 이러한 집단들은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시장의 활동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이득을 얻는 특수집단의 능력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특수집단에 유리하게 시장계약의 설립에서 가장 편리한 제도적인 중재자이다.”

구조적인 접근법에서 국민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묘사는 개발되어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민국가는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기존의 능력과 서열차원 (rank dimension)에 대한 태도는 경험적인 정보의 기초에서 정의되거나, 환경과 국민국가의 상호작용은 갈등, 조화, 종속의 대략적인 관계로 분석될 수 있는 측정의 총체이다. 총체적으로 이것은 매우 기계적인 태도에서, 구조적인 접근에서 국민국가가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국가를 내적인 이질성 (부분적인 예외는 내부적인 중심과 주변을 허용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이론들이 있다)에 충분한 주의없이 통합적인 행위자로 보려는데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구조적 이론이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권력정치와 먼 것은 아닐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향에서 통계적인 정보사용과 측정보다는 국제적인 무질서에 의해서 창출되는 압력과 민족주의에 대한 영향에 기인한다.

종속학과에서는 두개의 광범위한 시각이 있다. 원래의 프로비쉬 (Prebisch) 보고<sup>6)</sup>

---

5) Raimo Vayrymen, op. cit., pp. 84~85에서 재인용.

6) 1964. 3~1964. 6R까지 제5차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당시 동기관 사무총장이었던 프레비쉬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내용은 전후세계경제질서를 이루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거부하고 지난 날의 식민지 지배를 보상하는 일방적인 특혜에 의한 무역을 제기하였다.

는 종속을 2개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관계로 생각한다. 종속은 산업국가에서 수요성과 생산에서의 증대로부터 오는 불정한 배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무역의 불균형에 있다. 다른 하나(최근의 접근법)는 중심과 주변국가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도국에서 국가기관은 강력하고 긴밀히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해외로의 경제팽창의 원인과 결과이다. 주변국은 침투당하고 붕괴되며 발전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권력은 경제의 관련성과 종속의 다른 형태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국민국가의 특징에 대한 4개의 접근법을 살핀 것은 능력차원 즉, 대국 대 소국으로만 본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이분법(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엄격한 구분)은 다른 내부구조의 결과로 오는 것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것은 비교연구에서 소국의 외부행위와 대국의 외부행위를 대조한다는 것을 잘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행위에 대한 국가의 능력과 크기(size)에 연관을 시킬 때 매개변수로서 내구국가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아프카니스탄(Afghanistan)과 하이티(Hati)는 적고, 저개발국이지만 양국의 국내체제와 지정학적인 환경은 너무 달라서 그들의 외교행위는 크기·발전차원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것은 발전수준과 크기간에는 명백한 관계가 없고 한편으로는 외부행위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없다는 명백한 이유이다.

이 논문은 4개의 다른 연구경향에서 국제체제에 대한 그들의 관련과 소국의 취급법을 설명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연구에 있어서 강대국·약소국은 분석을 위한 초석으로 사용되어 왔다. 강대국접근법의 전체조건은 국제체제는 두개의 다른 차원으로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효과가 영향력 차원에서 관찰되는 국제적 행위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sup>7)</sup> 강대국 전통에서 소국과 중위국차원에 물리력을 가하는 일반적인 차원이 국제과두제(international oligarchy)의 성원을 이루는 것은 명백하다. 확실히 실제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전통은 강대국에 의해 유지되는 영향력의 분석에서 반영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초점은 권력의 시작과 주도권의 유형에 있다. 이것은 강대국에 의한 팽창의 가정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경쟁의 가정을 반영한다. 두개의 강대국 전통에서 대부분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경험들이 경험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해도 예를 들면 국제관계에서 소국의 불안전에 대한 중점을 두는 이 접근법에서 사로잡혀 있는 규범적인 시각도 있다. 즉, 국제관계연구에서 문헌의 대부분은 강대국 가정에 있

---

7) Raimo Vayrymen, op. cit., pp. 86~88에서 재인용.

다.<sup>8)</sup>

또한 동전의 다른면을 나타내는 소국가정도 있다. 규범적 시각에서 소국은 종종 불평등한 국제분업, 또는 강대국의 경쟁에서 유지되는 불안정한 국제체제의 무기력한 죄수(powerless prisoners)로 간주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 시각은 경험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세계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국제연맹과 1970년대의 평화공존시기에 소국의 행위는 강대국의 행위보다 더 건설적이고, 평화적이었다고 가정한다. 이 규범적 힘의 승배를 포기하는 접근법을 요구하고 국제관계연구에서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두는 것에 대한 항의이다. 추구되는 선택은 소국과 다른 약소국의 시각으로 바람직한 국제정치경제의 분석<sup>9)</sup>을 하는데 있다. 사실, 전통적인 연구계획을 뒤엎고 새로운 시각을 개척하는데에는 매우 유용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소국접근법은 초기단계에 있다.

## II. 권력정치(Power Politics) 시각

국제관계연구에서 권력정치의 전통은 강대국위주의 가정으로 여겨져왔다. 한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집단들이 필사적인 목적으로 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 그들의 비중에 따라서 평가되는 국제관계의 체제”이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이성에 상관없이 강제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힘의 본질에 기초한다.<sup>10)</sup> 이 접근법에 의하면 통합의 과정과 어느 정도의 분열과정은 소국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다. 소국은 그들의 항로를 조정할 수 있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이 소국의 독립이 그들 자신의 이익으로 간주될 경우(예, 완충국가)에만 보장 받을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이 소국이 강대국의 호의, 세계의 여론에 의해 그들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sup>11)</sup>

정치현실주의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정치의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는데에

---

8) Annette Baker Fox, *The Power of Small States: Diplomacy in World War II* (Chicago &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7), pp. 1~9.

9) Mairo Hirsch, "Who is in charge of the Destinies of Small States?: The case of Luxemburg", Otmar Holl, (ed.), op. cit., pp. 130~133.

10) Schwarzenberger, op. cit., pp. 13~14.

11)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 Y.: Alfred A. Knoff, 1973), pp. 4~12.

목적이 있다. 권력에 의해 정의된 이익의 개념에 기초한 이 법칙은 '이성과 이중심사'(dual test of reason and experience)에 귀속되어야만 한다.<sup>12)</sup> 이 법칙이 국제관계에서 거리낌없이 통용된다면 이것은 강대국들간의 대립의 결과를 가져와 소국은 독립을 유지하는데 여타의 선택이 없게된다. 이것이 바로 소국이 그들 자신의 주도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체제(system-wide)행동에 의해서만 제지될 수 있는 고질적인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로 부터 고통을 받는 이유이다. 모겐소는 안저의 근본으로 집단안보를 믿지 않는다. 즉 양국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에 현재세계에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집단안보는 모든 국가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sup>13)</sup>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안보전략은 국제안전을 보장해서 소국의 안전도 또한 보장해주는 세력균형에 기초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치현실주의에서 세력균형은 소국의 안정을 확보해주는 세가지 방법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다른 두가지 방법은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위하여 소국에 대한 보호국의 우월성이다. 2차대전까지의 발칸제국(Balkans)과 벨지움(Belgium)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의 운용때문에 그들이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아 왔던 국가들의 전형적인 예이다.<sup>14)</sup>

오랜 관행으로 인정된 내용때문에 세력균형은 정의하기어려운 개념이다.<sup>15)</sup> 용어와 소국의 안전을 위한 암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극·양국균형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 레이몽·아롱(Raymond Aron)에 의하면 다극균형은 복수의 경쟁국이 그들 자신, 확실한 규칙을 따르는 동맹국간의 권력관계에서 균형을 타파하려 할 때 우월하다. 이것은 모겐소가 세력균형으로 불러왔던 실제상황이다. 소국은 항상 규칙의 형성과 적용에 기여를 하지 못하다. 소국은 경쟁국간의 일시적인 연합으로 종종 유지되고, 강대국의 제국주의적인 열망이 서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희망만으리가질 뿐이다. 필수적인 것으로 소국은 안전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제기된다.

양국균형은 자신들을 둘러싼 연합을 산출해 내는 두개의 주도국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르다. 이러한 연합의 강도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질서에서 다른 연합의 것보다 우월해야만 한다. 양국균형에서 주도국과 그들의 연합간의 경쟁은 다극균형에서

12) Ibid., pp. 413~422.

13) Ibid., pp. 176~180.

14) 특히 E. B. Hass의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cs, Vol., 5, No. 4(1953), pp. 442~477를 참조할 것.

15)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London: 1966), pp. 128~140.

보다 더 영구적이고 강력하다(특히 정통성에 대한 공동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체제인 경우이다.)<sup>16)</sup>

양극체제에서 소국은 두가지의 안보전략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강대국의 어느 한 쪽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동맹(non-aligned), 중립(neutral)을 선언하여 양극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의 중요성은 동맹국안에서 소국의 이해관계는 주도국의 이해와는 매우 다른 사실로 인하여 반감된다 하여도 이것은 확실히 기본적인 차이이다. 비동맹국가입장에서 보면 강대국간의 특징은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시각은 상호관계에서 긴장완화는 소국의 행동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반면에, 긴장에로의 복귀는 소국의 충성을 위한 강대국간의 투쟁이 오히려 더 격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또한 있다. 테탕트기간 동안 강대국은 소국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그들의 기회를 줄이는 공동통치(Condominium)를 구축하였다.<sup>17)</sup>

권력정치학파에서 이러한 고려는 소국에 주어진 관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학파는 소국의 안보문제에만 관심을 표명한다. 즉, 소국이 강대국간의 지배와 권력투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이것은 소국에서 생존에 대한 다양한 원칙들이, 소국의 엘리트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할때 일어나는 이유를 부수적으로 설명해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통적인 규칙이 아직까지 없는 한<sup>18)</sup> 전세계적인 무질서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세력균형이다. 권력정치에 소간 학자들은 예를 들면 소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아왔다.<sup>19)</sup>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분류는 실체적으로 말해서 강대국보다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지역강대국(regional great powers)과 중위국(middle powers)과 같은 이러한 분류들은 이러한 학자들의 분석에서는 항상 언급이 되어 있는 않았다.<sup>20)</sup>

---

16) Kenneth N. Waltz, "International Structure, National Force,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J. N. Ro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New York : The Free Press 1969), pp. 364~313.

17)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London : Frank cass, 1981).

18) Marshall R. Singer, *Weak states in a World power :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2), pp. 35~42.

19) 이러한 문제를 다룬 최근의 대표적 서적은 Peter J. Katzenstein,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 Industrial Policy in Europe*(Ithaca & London : Cornell univ. press, 1984).

20) Michael Handel, op. cit.

### Ⅲ. 세계체제분석 (World System Analysis)

권력정치와는 반대로 세계체제분석은 소국을 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다. 즉, 국제체제를 異種(heterogeneous)의 국민국가로 나누어진 통합세계경제로 본다<sup>21)</sup> 이것은 유일한 경제분업이 평범한 정치·문화체제에 의해 달성되는 세계제국(World Empire)과는 반대이다.<sup>22)</sup> 차이는 정치·문화적인 이질성과 동질성에 있다. 세계의 계층구조 즉, 중심(core), 반주변(semi-periphery), 주변(periphery)으로 구성된 것이 국제체제에 존재한다. 이러한 계층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매우 어렵고 국가들은 우연히 이러한 범주에 놓이게 된다. 경험적인 노력들은 무역, 대외적인 교류, 조약관계와 군사개입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흐름에 기초하여 국가의 지위를 규정지우려 하였다.<sup>23)</sup>

세계체제분석은 다른 국가유형에서 범세계적인 자본주의분업은 생산의 특수한 형태를 포함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sup>24)</sup> 중심생산국은 자본집약적이고 숙련되고 잘 대우받는 노동에 의존하는 반면에, 주변생산국은 노동집약적이고 비숙련노동과 정치적인 강요에 영향을 받는다. 반주변국에서는 중심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혼합생산양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체제분석은 해석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즉 정치권력의 역할도 인식되어야 한다. 자본축적과 정치권력의 조직간에는 본래 복잡한 것이다. 다양한 경제이익집단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정치적인 지침을 조절하고 노동력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 예를들면 경기후퇴기간동안 당사국의 자가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국가권력은 자본주의경제논리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국가체제에서는 이것의 활용에 따라 확실한 독립성의 정도를 갖는다. 하지만 이 체제의 회원국들은 너무 오랫동안

---

21) I. Wallerstein, 「세계체제론」 정진영(편역),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84), pp. 85~90.

22) Ibid.

23) Hans A. Mouritzen, "Defensive Acquiescence: Making the Best out of Dependence", Otmar Holl, (ed.), op. cit., pp. 239~259.

24) Kimmo Kiljunen, Finland in the European Division of Labour", Othmar Holl, (ed.), op. cit., pp. 145~160.

동안 경제력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의 정치·군사력은 경제적인 경쟁력이 쇠퇴된다면 감소될 수 밖에 없다.<sup>25)</sup>

세계체제분석에서 주요한 논지는 상호밀집하게 연결될 정치·경제의 국제체제가 불평등한 발전에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콘트라디에프(Kontradieff)\*, 슈페처등의 학풍에서 보이는 이 사상은 자본의 축적유형과 투자활동비율에 근거한 경제의 상승·하락에 의하여 세계경제는 발전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긴 주기는 세계체제에서 각국의 상승·하락의 이동에 의해 수반된다. 정상적으로 세계경제팽창은 서로 세계경제의 자유롭고 다국적인 활동의 지원을 시작한 주도적인 중심국의 생산적인 이득에 공헌한다. 이것은 자발적인 경제성장과 위한 전망을 왜곡하면서 주변국으로 집중적인 침투를 하게 된다. 결국, 세계체제의 논의는 다른 중심국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핵심경쟁을 벗어나려는데 있다. 이러한 경쟁에 대한 경제적인 장치는 보호주의적 조치와 상호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중심국에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중심국으로부터의 침투가 쇠퇴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전망이 향상되고, 주변·반주변국의 상대적인 경제중속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논지는 중심과 주변간의 단일적인 무역블럭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중심국의 경쟁간의 환경에서 종종 재발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은 몇개의 주변·반주변국가에서만 진보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상승적인 기동력은 왜 선택적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준다.<sup>27)</sup>

이러한 전통에서 소국을 포함하는 국민국가들은 자본주의세계경제의 경제적인 논리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대적인 힘의 연속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1640년 이래로 세계체제는 3개의 권력구조가 유지되어 왔다.<sup>28)</sup> 이 상대적인 안정은 핵심국에 대한 주변국의 통합된 반대와 양극화된 세계체제의 출현을 반대해 왔던 반주변국들의 역할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주변국은 세계체제에서 그들의 상대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심국의 정치·경제적인 지배에

---

25) Robert Gilpin,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강문구역) (부천 :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 pp. 105~160.

26) 김진철, 「세계정치경제론」(서울 : 글바우, 1989), pp. 55~86.

\* 소련의 경제학자로 50~60년을 1주기로 하는 최장기의 경기순환 파동설을 주장하였다.

27) Peter Z. Katzenstein, op. cit., pp. 20~59.

28) John E. Spero, 「국제정치경제론」, 신정현(역) (서울 : 대학문화사, 1984), pp. 15~38.

대항하려는 끈질긴 성향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심국은 이러한 반란을 억누르고, 그들의 주요한 위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종종 세계체제의 계층적인 권력구조에서 상승하고 반중심국에 대항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다(예, 중국, 멕시코, 인도, 이집트, 터어키).

경제력의 확실한 정도를 전제하는 국가권력의 강화는 국제적인 계층구조에서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으로 강대국 구조는 양소국의 약점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주변에 있는 약소국의 직접당사자이다. 상승하기 위하여 국가는 예를들면,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경제적인 축적과 정치적인 재조직은 서로를 보완한다.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핵심기술과 가장 밀접한 국가관료제와 군은 국가안에서 결집과 강화를 증기시키는데 이용되는 사회적인 집단들이다.

세계체제에서 상승에 대한 선택성때문에 몇몇 국가만이 주변에서 반주변 그리고 주변에서 핵심국가로 진전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주변국에 속해 있다. 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체제의 권력구조가 포괄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불안정하면서 탄력성이 없다. 주변국들은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과 팽창기간 동안에는 착취당해야 할 운명에 있다. 반주변국으로 간주된 어떤 나라들은 관심적으로 소국의 범주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국접근법과 세계체제접근법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산업세계에서는 더욱 크다. 왜냐하면 제3세계의 반주변국들은 소국보다는 중위국으로 종종 간주되기 때문이다(멕시코,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유럽의 반주변세계체제분석가들은 포르투갈, 그리이스,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을 소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대개 이러한 구분은 세계체제분석에서 한 국가의 국제적인 위치는 생산형태와 국가권력의 본질에 초점을 준 역사적인 시각에서 정의된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소국연구에서 국가들은 주로 능력 지표에 의해 정의된다.

이론적인 전제조건들과 이것들의 경험적인 결과들은 이러한 두가지 전통에서 다르다. 이것은 소국연구의 주도적인 접근법은 이 논문이 의존할 구조적인 정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IV. 구조적 접근법 (Structural Approach)

국제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법은 국제체제에서 권력과 능력에 관한 다양한 차원을 측정케 하고, 이것들을 국민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sup>29)</sup> 그래서 구조적 접근법의 목적은 국가의 지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권력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법은 권력정치가 국가간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배분에만 초점을 두고, 세계체제분석이 근본적으로 범세계적인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접근법관은 다르다. 가장 간결한 분석에서 국제체제의 구조는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국가간에 서로를 강화하는 고정된 계층구조로 본다. 상호작용의 봉건적인 유형으로 굳어진 체제의 상부구조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sup>30)</sup>의 말을 인용하면 계층구조의 밑바닥에 자유와 이동을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에서 구조적 접근법은 권력정치와 세계체제분석과 같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들을 종합할때 소국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안보의 결핍과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은 약간은 편향적이다. 천연(natural)과 인력(human)에서의 크기와 자원의 부족은 소국을 지배국으로 부상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소국은 정치·경제적인 용어로 국제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생각(군사적인 면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무기기술의 현격한 차이때문에 매우 다르지만)은 정당화 되어 왔다. 경제적·정치적인 선택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소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정치·규범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는 최소한 두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규모와 외부행위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다른 요인들은 이 행위, 활동과 방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sup>31)</sup> 둘째로, 본질적으로 계층적인 국제권력구조의 실상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국가들을 규율하려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요사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권력구조는 종종 인식되는 것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힘에 대한 약간의 재원은 다른 재원보다

---

29) James Petras, "제3세계 정치·경제학의 제관점", 김호진(번역),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서울:한울,1986), pp.25~50.

30) Ibid.

31) 김호진, op. cit., pp.302~310.

(군사력) 더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구조적인 전통에서 소국은 항상 두가지 방식, 혹은 두가지의 조화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경험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인식에 의하여 정의된 능력, 국가의 서열은 두가지 방식중 하나였고, 반면에 다른 것은 국가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즉 강대국 지배에 복종하는 것은 소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 구상은 소국의 역할과 지위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 이해갈등이 다른 서열위치에서 국가간에 어느 정도로 우월한가를 묻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다.<sup>32)</sup> 이익시각은 구조적 접근법의 특징만이 아니라 권력정치와 세계체제분석에 의존하는 연구에서 더 우월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갈등은 크기와 능력에 대한 여러가지 지표를 사용하면서 소국의 비특권적인 위치를 묘사하는 구조적 결핍의 개념에 물들여져 있다. 구조적인 결핍은 경제적인 종속을 산출할 우려가 있다는 경험적인 실증이 있다. 양자는 무역과 관련된 불안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sup>33)</sup> 소국연구의 구조적인 접근법은 규범적으로 소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종속적인 면의 분석을 확대시키지 않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에 대해 언급한다.

상호의존은 국민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미약성과 밀접하다. 미약성 상호의존은 와해되기에는 손해가 많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반면에 민감성 상호의존은 한 체제에서의 변화가 다른 체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국가체제간에 일반적인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민감성은 상호책임성에 대해 언급하는 반면에 미약성은 적대적인 자신들을 분리하는 정부의 상대적인 무능력의 결과이다. 구조적 접근은 특정국가가 다른 국가로의 침투를 인식하려 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의 결과로서 국내체제의 완전한 형태로의 변용은 분석되지 않는다.<sup>34)</sup>

“소국은 대국보다 더 상호의존적이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국제정치·경제관계에서 변화는 강화케 소국의 국내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소국이 종속관계의 망을 깨는데는 희생이 매우 크다. 소국들은 상호의존의 높은 수준에 대항하여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을 수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제권력구조의 복잡성은 소국

---

32) Mary Ann Tetreault, "Measuring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4, No. 1(1980), pp. 429~443.

33) Neil R. Richardson,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pendence*(Austin of London : Univ. of Texas press, 1978).

34) 신정현(역), op., cit. pp. 191~192.

을 상호의존체제안에서 다양한 돌파구를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 체제안에서 상승작용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인 계층구조에서 진보에 대한 이러한 한정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소국의 특징이다.<sup>35</sup> 환언하면 단독, 소집단으로 행동은 하면서 국제체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체제우월적인 총체이다.

소국의 정치·경제적인 행위는 국가와 다른 관련집단간에 질적·양적에 따른 상호작용의 불균등성과 국제규모에서의 권력능력의 불균형적인 배분에 의해 제한된다. 소국문제는 권력정치에서 종종 보듯이 영토적·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간 상호의존관계의 조정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조정에 있다.

소국연구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안보정책에서 지속저궁로 주류가 되어왔다. 안보의 정의는 점점 상호의존관계를 쉽게 하는 경제·기술적인 위협과 국가경제의 발전성을 살필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 미약성의 문제는 국가안보정책형성에서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이것에 따라서 스웨덴학자가 국가간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안보위협'이란 용어를 만드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웨덴 학자는 진짜의 평화와 공재전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에서 여러가지 전략들을 살핀다. 이 접근법에서 안보는 특정한 군사적 위협에서 보자는 한 국가의 국제적 위치의 활동에 따라서 정의된다.

상호의존사상은 정책결정에 의해서 정의된 정치권력의 분석으로 또한 통합된다. 상호의존과 권력은 두 개의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sup>36)</sup> 하나는 국가간의 구조적인 비대칭은 소국에 영향을 주는 결정으로 수립될 수 있는 권력의 기본을 제공한다. 둘째는 종속 그 자체가 가치배분의 과정이다. 이것은 통상국가간의 쌍무관계에 적용되는 결정력(decision power)보다는 체계적인 변영인 구조적인 힘으로 종종 쓰인다. 이 시각은 소국과 대국은 외부세계에 대한 그들의 종속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상, 강대국과 중위국은 소국보다 정치·경제적인 선택에서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행동의 확실한 결정을 하는데 강대국의 결정은 소국에게 불리한 수많은 선택을 소국에 부과한다.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 비대칭적 상호의존, 국내·외교정책에서 상대적 자율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련들은 국가간의 상호접촉과 다국적인 맥락에서 뚜렷하다. 확실히 서독은 유럽공동체에 종속되어 있고, 비교적 큰 영토,

35) R. Vayrymen, op. cit.

36)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Boston: Little, Brown, 1977).

다양한 경제, 강력한 통화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독일은 유럽공동체의 경제·제도적인 복합성에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벨기에, 덴마크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V. 종속접근법 (Dependence Approach)

구조적 접근법과 종속학과간에 논쟁의 주요 골자는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경제가치의 흐름에서 구조적인 불균형때문에 강대국은 소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조와 종속접근법간의 차이는 뚜렷한 것이 아니며 양자는 2분법보다는 연속체 (continuum) 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주요 차이점은 종속학파에 의해서 지배의 내부적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국연구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법은 분석에 대한 행태적인 도구의 사용에 의해서 매우 크게 비중을 둔다. 반면에 종속학파는 질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속접근법은 힘과 영향력에 대한 국제적인 불균형의 맥락에서 소국의 정치·경제·사회형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구조주의와 종속학과간의 중간접근법은 초점이 국제체제의 양극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내부변영에 의존하는 최소한 두가지 변수로 나눌 수 있는 주변·중심모델이다.<sup>37)</sup> 예를들면, 요한 갈통은 주변사회의 경제침체와 불균형에 대한 영향력과 모델의 상호작용의 면을 강조한다.<sup>38)</sup> 다른 접근법은 지배와 불균형에 기초한 국제경제체제를 산출해 왔던 중심국의 국내적 필요와 압력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중심-주변은 능력기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소국연구에 대한 구조적 접근법에서의 실제이다) 중심-주변간의 변증법적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태주의적 용어로 이 결론으로 표현하면 중심·주변관계는 그들이 국내변영과 행동의 동기가 상호작용하는 종속·독립변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sup>39)</sup>

중심·주변모형과 소국에 대한 연구사이의 관계는 정확하게 성립시키기는 어렵다. 주변과 소국체제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문제는 세계체제분석의 토론과 소국연구의 적합성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경험적인 분석에서 국제체제의 중심은 국가

---

37) Jams A. Caporaso, "Dependence, Dependency, and Power in the Global system : A Structural and Behavior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1(1978), pp. 27~30.

38) R. Vayrymen, op. cit., pp. 100~101에서 재인용

39) Ibid.

들의 통합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주변들은 두개의 국가군으로 나누어져 있다.<sup>40)</sup> 주변국이 경험적으로 외부종속의 지표에 기초해서 집단을 이룬다면 몇개의 중심국과 연계도니 수많은 하부지역군들이 산출된다. 이 경우에서 실제로 부국과 빈국은 바리케이드의 다른 면인 경제력의 국제구조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소국의 개념은 어떤 의미있고 분석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지가 요청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쉽게 범세계체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소국의 개념은 한정된 적용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범세계권력구조의 연구에서 소국시각에 대한 한정적이고 분석적인 유용성과 소국의 외교정책에서 동일한 행동유형을 발견하려는 어려움은 전체연구전통의 장점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해왔는데 있다.<sup>41)</sup>

자본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는 소국연구와 종속연구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부가적인 도구로 여겨서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본의 국제화는 자본기술, 지식의 통합에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국제적 이동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수정되어 간다.<sup>42)</sup> 이것은 권력정치 전통에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정치·경제모형과 국제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정당화라는 것이다. 사실 두 세계는 서로 침투하고 이들의 분화는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유용된다.

구체적으로 국제화의 과정은 독립적으로 국가, 기업체라 할 수 있는 소수의 손에 있다. 개발되고 저개발된 소국들은 침투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좋은 선택권을 가진 대국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자본의 국제화와 생산의 여타수단은 높은 차원의 기술종속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지불균형위기와 같은 현사이 대부분의 소국에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 결과는 국가경제의 편향된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 결론은 기술적인 침투의 정도는 소개도국보다는 대개도국에서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발전모델이 기술적 침투의 정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대개도국은 그들의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압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

40) A. Brewer, "중심부자본과 주변주자본", 김호진(편역),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1986), pp. 79~88.

41) Robert L. Rothstein, *The Weak in the World of the Str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7), pp. 42~47.

42) Peter Baehr, "Small States: A Tool for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 (1975), pp. 456~466.

다는 사실이 기인한다. 예를들면 멕시코, 브라질, 인도와 같은 제3세계국가들은 법적인 수단으로 선진국들의 기술적인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상표체제와 국제 특허를 개정하는데 최선봉에 왔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언급들은 반이론적인 고찰로 자본과 기술의 국제화는 소국연구와 중심·주변모형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확실하게 통합적인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주는 개념은 소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기술력의 붕괴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특히 국가들의 실예들이 분석된다면 소국들을 굴복시키는 문제와 통계분석에 소국의 내외행위를 강조한다. 각국의 발전수준과 자본과 기술의 국제화과정의 차원에서 엄청난 불균형에 대한 좌절된 영향은 소국연구에서 유형과 분류의 사용을 더욱 의미있게끔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간 분류를 하고 비교접근의 사용을 위한 이유를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비교들은 소국·대국과 같은 국가집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들은 집단간 분석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달라지는 소국간의 비료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비교접근법은 국가의 관련된 분류간의 차이점에 대한 기록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분간의 내부적 동질성분석에도 사용된다. 연구기획에 대한 이 유형에 의존하면서 국제관계이론의 용어에서 위치를 정의하는데 주된 어려움 중 하나인 소국분류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 VI. 요약 및 결론

소국연구의 중심적인 딜레마는 소국들은 능력기준에 의해 다른 국가들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점에서 소국연구경향은 근본적으로 행위지향적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있다. 이것은 국가에 관한 이 범주를 국제관계의 다양한 연구기술이 있지만 국가능력의 분석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에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오히려 적다.

국가간 권력관계모델은 구조적 접근법이 군사·경제력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안보분야에서 대국과 소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왔다. 이 두 모델간의 통합적인 특징은 국내체제의 본질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국제체층

---

43) P. T. Hopmann, "Asymmetrical Bargain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1 (1978) pp. 141~177.

구조에서 타국과의 서열과 능력에 있다.

하지만 국가능력의 분석만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제권력구조와 권력의 움직임은 행위자간의 관계에 대해 초점이 필요한 것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종속적인 분석과 구조적인 접근법에 속한 어떤 연구에서 상호작용의 본질은 소국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변용에 대한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어왔다. 소국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소 (smallness) 라는 것은 능력지표에 의해서 보다는 더 강한 행위자에 대한 관계로서 정의되어 온 해결에 따르는 결과이다. 이것은 국가능력에 대한 거의 배타적인 의존에 관한 유용한 보충물이 되어왔지만, 동시에 소국연구를 그것의 기원으로 멀리하고 다른 연구경향에 의해 보충되는 분야로 소국연구를 이동시켰다.

소국의 국내구조분석은 이 경향을 매우 강하게 뒷받침해 왔다. 문제는 소국의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았던 세계체제분석과 종속분석과 같은 이러한 지역연구전통에서 종속사회의 사회·경제체제의 형성과 상호작용의 초국가유형의 특징을 설명하는데는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통을 흡수하기 위하여 소국연구는 기원이 몇몇 연구에서 거의 규명되지 못하는 정도로 강화·수정되어 왔다.

소국에 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의 정치·군사적인 지위를 취급하고 종종 경제적인 미약성만 언급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이 특수한 면에서 소국연구는 많은 혼란스러운 요인들이 연구의제로 남아 있지만 매우 집착적인 접근법으로 발전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소국은 국제정치·안보문제의 분석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생생한 범주이다.

경제적 분야가 고려될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서 자본과 기술의 국제화와 같은 사상들을 도입하면서 종속관계와 경제발전의 분석에 특수한 이론적인 전통에 소국시각을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가능해진다. 사실 국제경제분야에서 발전의 다른 차원에 있는 소국의 지위는 구조적으로 안보정책분야에서 더욱 균일해진다. 이것은 종속문제와 발전의 분석에 대한 보충으로서 소국개념의 적용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적용에서 자연히 분석에서 통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개념보다 측정, 분류의 총체가 되는 외부적이고 이론적인 맥락에서 개념이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 뒤에 있는 것은 소국연구에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기준에 의해 정의된 한벌의 행위자의 연구에 근본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발전도상국·선진국들은 구분해서 다루어져야만하고 서로 비교되어야만 한다. 소규모는 타국들로부터 이러한 국가들을 분리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결정은 한 국가의 소 (smallness) 에 기초한 행태적인 결과의 분석(정

치, 경제, 군사)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행태적인 특징들은 소국의 기준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국내체제의 발전에 과한 영향뿐만 아니라 번영과 상호작용에 관한 초국가체제의 연구는 종속접근, 제국주의적 접근을 포함하는 다른 연구전통에도 남겨두어야 한다.

확실히 이러한 경향들은 소국연구가 외부경향을 설명하는 소국의 번영을 필요로 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현재의 불균형한 국제체제의 운용과 발생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국가들의 동기와 국내체제가 필요하다. 차이는 지배, 종속, 제국주의에 관한 연구는 강대국의 수준, 어떤 경우에는 중위국 수준으로부터 평범한 요인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 큰 차이점은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상호작용의 초국가체제는 이 문제를 왜곡·변용시키는 독립변수로서 사용되고, 국내체제도 탐구된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순수해 소국연구분야를 크기(size), 외부경제, 정치행위의 관련된 분석에만 한정시키면 안된다. 국제·지역체제의 변용(Robert Keohane에 의해서 제안되었듯이)에 대한 소국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작업은 경험적·규점적 연구를 허용하였다. 소국은 국제체제가 움직이는 형태를 집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서 서로 분리가 되어왔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왔다.

하지만 유럽정치의 학자들은 1970년대의 긴장완화는 유럽발전에 대해서 영향력을 증가시켜서 소국의 기회를 증대시켰다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관찰과 관련되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소중립국(Small Neutral Status)들은 마지막 법령(Final Act)에 포함된 것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강대국들은 생략되어야만 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세계체제분석은 국제경제의 하락과 중심국간의 경쟁의 상승동안에 다양한 반체제 세력은 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 세력들은 자신의 이해에 맞게 국제질서를 변화하기를 원하는 국가, 하부국가혁명세들이었다. 세계체제분석은 소국을 반체제세력들로 간주하지는 않아왔다. 이것은 소국들이 강대국·중위국에 대항하는 통합전선을 형성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소국은 전세계적인 경험침체와 중심국간의 경쟁의 상황에서 대부분 선택적으로만 그들의 위치를 개선시킬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어떤 만족적인 주제를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구조적 접근법은 거의 동일한 결론으로 귀착된다. 보통, 국제체제에서 보상되는 구조적인 지위의 결핍은 소국의 운명을 증진시키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국제권력구조는 각 소국들이 조화된 정치적·경제적 행동에 의해서만 상대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탄

력성이 있다. 종속적 시각은 이러한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주변국에서 중심국가에 의한 제한된 지배에 있다는 생각을 부가한다.

권력정치에 관련된 국가들은 명백하게 소국들이 활동에 의해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소국의 선택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소국의 안전은 상대국의 권력투쟁을 깰 수 있는 범세계적인 권위의 구축, 세계균형체제의 유지와 창설에 의해서만 강화 될 수 있다.